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상상 그 이상을 향해서!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ON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1210 **fax.** 051-441-1210
전주 **tel.** 063-211-55000 **fax.** 063-211-55000
서울 **tel.** 02-303-7811 **fax.** 02-303-7811
영역: 영종대교역 **tel.** 063-281-1500 **fax.** 063-28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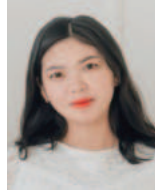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쥬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신재순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magazine
gun

Vol.170 | 2025.06

회장	박승일	newgunsanews@naver.com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부사장	강권모	sky6113483@hanmail.net
편집부장	이쥬은	leejony_@daum.net
취재부장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집위원	강해인	godls468@naver.com
편집위원	박세원	hamp38@hanmail.net
편집위원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편집위원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이소암	lsa6246@hanmail.net
편집위원	이영미	ycm1022@hanmail.net
편집위원	조경신	vip2300@daum.net
편집위원	최영두	cydnovl@naver.com
편집위원	한상오	hansango24@gmail.com
편집위원	한대산	jbekt@naver.com
칼럼니스트	배수정	jlmjlm710@naver.com
칼럼니스트	신재순	speedal@hanmail.net
칼럼니스트	공종구	kong@kunsan.ac.kr
칼럼니스트	김철호	www.crabland.com
자문위원	이진우	jay0810@hanmail.net

공무원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신입 학원가들입시(magangseol Application) 부문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5년 연속 선정

고급직업교육, 통일인재양성 | 교육부 교육혁신고교육성사업(2020년) 선정 | 서울특별시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2020년) 교육혁신 |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교육혁신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교육혁신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사업(2020년) 선정대학



교육부 지정 교육혁신고교

군장대학교

군산항, 내항부터 살리자

언제부터인가 군산항이라고 하면 내항도 아니고 외항도 아닌 군장신항만을 일컫는 말이 되고 말았다.

군산항의 뿌리는 군산내항이다. 일제 강점기 부산(1876년), 원산(1880년), 목포(1897년), 진남포(1897년)에 이어 국내에서 다섯번째로 1899년 개항되었다.

내항에는 동부·서부 어판장 등 주로 어선들이 이용하였으나, 경암동 군산화력발전소에 유류를 싣고 들어오는 배 등 3천톤~5천톤급 화물선도 입항했다고 전해진다.

1979년 ‘ㄷ’자형 외항이 완공되어 외항 1부두, 2부두, 3부두로 명명되었으며, 이 때부터 사실상 내항의 기능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내항의 기능 쇠퇴는 외항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선박이 정박하는 이른바 ‘박지’의 준설이 필요했다. 신항만 개발 당위성이 나오기도 했다.

군장신항만을 개발하면서 유속(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항로와 내항 등이 토사 매몰이 안되도록 한다는 이유로 남측 도류제, 북측 도류제가 만들어졌다.

일자형 항만으로 개발된 건 항만의 기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썰물과 밀물 때에 물이 빠르게 오르 내리게 하여 소류사와 부유사의 침적량을 줄이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건 모두 하굿둑 수문이 막히기 전까지의 일이다. 해수부는 하굿둑의 수문을 막기 위하여 그 당시 ‘수리모형실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하굿둑을 막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내항의 토사 매몰은 가속화되었으며, 결국 내항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오늘 날 내항 일대는 밀려든 토사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일이니 이젠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99년도 이후 만들어진 군장신항만 또한 밀려드는 토사 유입으

로 항로 준설 등등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만금신항으로 군산항의 이름을 통일한다고 한다.

군산항의 역사를 감안하고 항만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군산 사람들은 너무 정부의 말을 믿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하굿둑으로 인한 항만 기능 쇠퇴 문제를 직접 보아온 지금 군산항을 총체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때에 하굿둑의 기능을 다시 점검하고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건의문이 나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해수부(당시 해양항만청)의 수리모형조사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자.

정부가 주도하여 군산항(내항과 외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도록 한 셈이니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원상 회복시키길 바란다.

이번 송미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군산시와 전북특자도 또한 군산항의 원형부터 살리자는 이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라.

그래야 군산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산다.



글 |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소리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

고용노동부장관상 받은
(주)서해환경 이희정 노조위원장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시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애향심, 미화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 시민들을 위한 희생정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려는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시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지요.”

시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소리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

어둠이 깨지 않았을 때 일어나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줘 온 ‘소리 없는 헌신’은 바로 그들의 몫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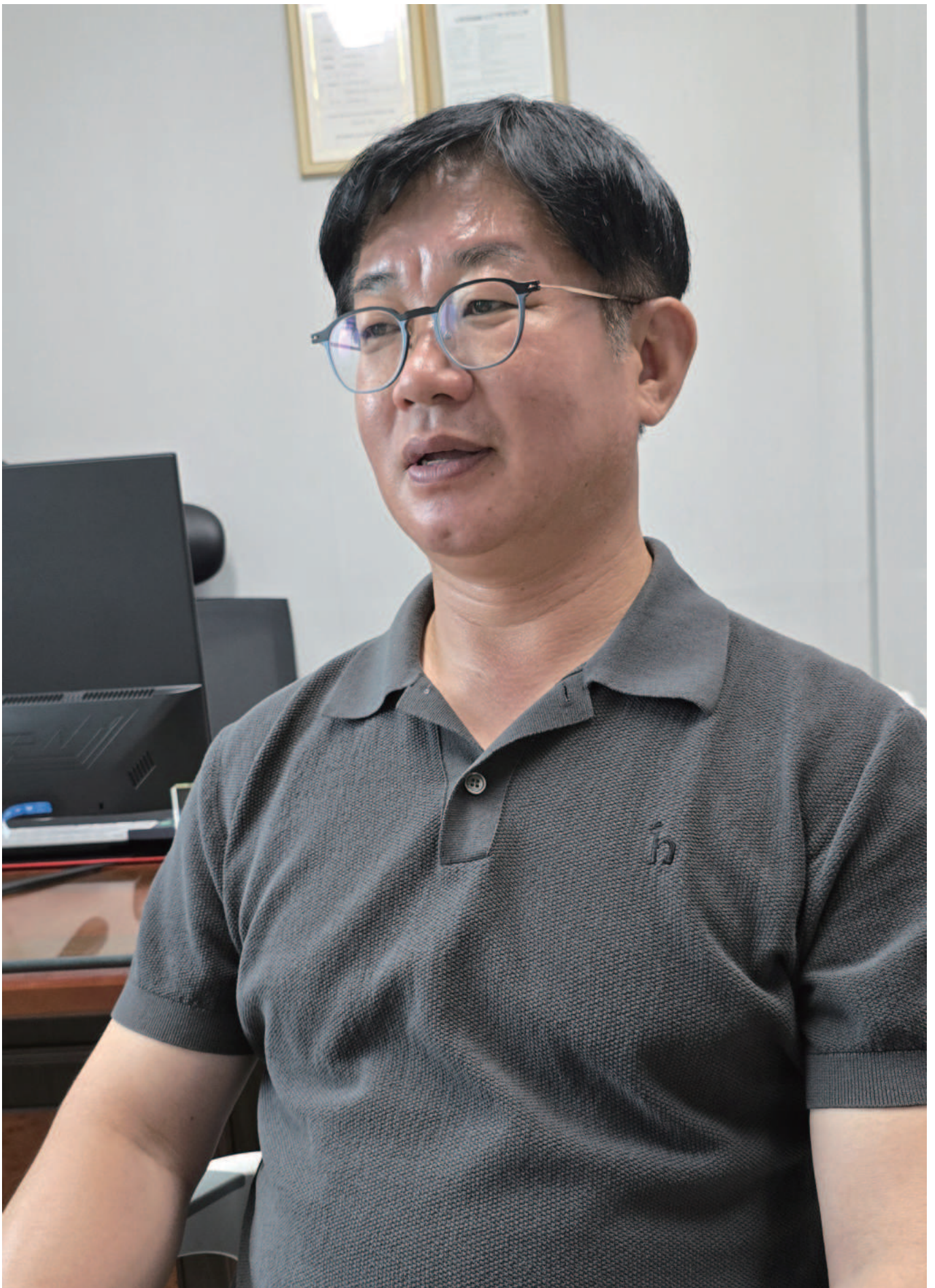
바로 (주)서해환경의 직원들이다.

21년 전 막둥이 사원으로 들어왔던 이희정 직원, 이제는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성장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이 위원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다.

그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리더십은 숭한 파고를 넘으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 온 (주)서해환경의 성장 과정을 닮았다.

스스로를 낮추어 주변을 빛나게 하는 이 위원장의 과묵한 언행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 직원이 참여한 겨울철 폭설 제설작업



곳은 일에 항상 앞장서는 서해환경 직원들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

벌써 수 십 년째 새벽마다 군산시내 골목골목을 쓸고 닦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다.

누구네 집 대문 앞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시내 가게 앞과 건물 주차장 가릴 것 없이 관리 해주는 서해환경 직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미화원으로 불리기도 했던 직원들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산시로 부터 청소 용역을 위탁받은 이후 90년대에 150여명 정도였던 직원도 약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일이 많아진 탓이다.

요즈음의 서해환경은 기다려도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취업 인기 직종이다. 그 때문일까. 직원들 또한 예년에 비하여 한층 젊어졌다.

“예전엔 나이드은 분들이 다수였으나 요즘은 30대~40대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젊은 층이 대거 입사하는 바람에 회사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좋다고 봐요. 투철한 직업의식이 없으면 헤쳐 나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청소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고, 복지는 물론 근로 조건과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좋아지면서 지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취업문이 좁아진 만큼 직업관이 뚜렷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군산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온 (주)서해환경의 직원들. 그들이 청소 위탁 관리업체라는 한계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심으로 다가 서려는 회사의 오랜 경험과 직원들의 직업 정신. 그리고 박성윤 대표와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희정 노조위원장 ‘새벽을 지키려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21년 전 입사한 막동이 사원, 제9대 노조위원장이 되다

지난 2024년 12월 제9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오른 이희정 직원. 2004년 7월, 약관 스물일곱에 입사했던 막동이 입사 21년 만에 노조 위원장에 올랐다. 모두가 내 것처럼 축하해 주었다. “아버지가 공직자이셨는데, 서해환경과 인연을 맺도록 해주셨어요. 2004년도인데 제가 스물일곱 되던 해였지요. 약 150여 명의 직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동이었죠. 당시 기동반 이라고 해서 청소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외곽 지역, 혹은 민원 현장에 나가 뒤처리를 하는 게 업무였어요.” 막동이 사원이었으나 정말 열심히 일했다.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기동반에서 일하다가 소독차로 이동했다. 시내권의 쓰레기 처리량이 워낙 많다보니 몇 군데에 ‘적화장’을 두고 현장에서 분리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그리고 요양원 등 위생 취약 지역 관리도 맡았다. 2006년부터는 음식물 처리 차량에 동승해서 일을 했다. 입사 6년~7년 정도가 지나서 기사로 올라갔다. 소리 없이 일하는 가장 모범적인 직원, 그게 바로 이희정이었다. (주)서해환경은 일반 회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기에 조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노조 임원 회의



군산조선폐쇄장 가동 중단 항의 농성 참여



2025년 근로자의 날 이희정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사진 가운데)



이희정 위원장 부부



(주)서해환경 노조위원장 최초로 정부 포상 받아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소란스럽지 않게 청소 업무를 해야 하지만 ‘내가 희생해야 시민들이 편안해진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아마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억지로 일 할 수는 없잖아요.” 2천년 초까지 생활쓰레기와 함께 음식물 처리도 했다. 당시에는 음식물이 분리 배출되지 않아서 수거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이면서 썩는 것은 물론 악취가 말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다.

(주)서해환경 노조 위원장은 9대에 걸쳐 이어져왔다. 임기가 3년 씩이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지난 2024년 박성운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회사로써는 영광이었다.

이희정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써 최초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자체 실험을 만들어 조합원들이 1만원~15만원까지 출자를 하도록 했어요. 모아진 기금으로 회사 직원에게 시중은행 보다 싸게 대출을 해주고 이득금이 발생하면 출자 배당도 하거든요. 나름의 복리증진 사업인데 이런 활동이 어필했다고 봅니다.”

노조위원장의 정부 포상은 개인으로써는 영광이자, 회사로써도 대표의 포상에 이은 겹경사.

“저희 회사는 군산시가 사용자이고 위탁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때문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융화를 잘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시민들을 위한 무한 봉사가 우선이고요.”

마흔아홉의 이희정 노조위원장은 정년까지 12년이 남았다.

입사 21년 만에 노조위원장을 맡았으니,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서해환경 사옥 앞에서 이희정 노조위원장



대의원 워크숍



서해환경 노동조합 2025년 워크숍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시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일을 하는 게 서해환경 직원들이다.

90년대 중반 시·군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골목 청소가 시범 사업으로 갈라져 나갔다. 시민들이 잠잘 때 일을 마쳐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일관성이 있어야 했다.

그 당시 다른 도시에서도 유행처럼 경쟁 체제를 도입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났고 주변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온 건 바로 (주)서해환경의 직원들이었다.

잠깐의 혼란기를 마무리 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그들의 힘이 컸다. 군산시의 신뢰와 시민들의 지지도 더욱 커졌다. 요즘은 주택가 혹은 시내를 지나다 보면 젊은 미화원들이 수거 차량 앞뒤로 뛰어 다니며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도로가 붐비면 혼잡해 지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다 돌 수가 없어

요. 숨이 턱에 차고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하죠. 물론 힘들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인생에서 새벽잠을 반납한 건 어쩌면 그들의 숙명이다. 군산시민들의 만족감은 서해환경 직원들의 이런 희생정신과 직업 의식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쉬운 길이었을까.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새벽마다 현장을 돌며 아쉬웠던 곳을 체크하고 조용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박성윤 대표의 섬세한 관리.

여기에 막동이 직원에서부터 한 발 한 발 성장하여 오늘의 노조 위원장에 오른 이희정 위원장의 조용한 리더십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

오늘날의 깨끗한 거리는 시민들의 관심과 서해환경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이희정 위원장 가족



서해환경 전 직원 인사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옥구중학교에 다닐 때 육상 선수를 꿈꾸기도 했어요. 약 2년 정도를 ‘죽기 살기’로 달리고 또 달렸죠. 실력이 부족해서 약간 실망도 했으나 어느 순간 만이로서의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77년 임피면 보석리 448-2에서 태어난 그는 술산초, 옥구중을 거쳐 군산동고를 나왔다.

동고를 졸업할 때쯤 전자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된다고 했다. 얼른 졸업해서 가게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시 군장전문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어진 군 입대,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임피에서 식당을 했다. “어머니가 임피에서 중앙식당을 했는데, 가까운 지인이 중매를 썼어요. 군대 제대할 무렵인데 어청도가 고향인 지금의 아내(이 재숙씨)를 만났죠. 마음에 들었으나 제가 성격탓에 별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인연이 된 걸 보니 이심전심 마음이 통했나보죠” 서글서글한 눈매가 매력적인 이 위원장은 그녀를 만나 2002년 월드컵의 해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나 있다. 귀하고 귀한 딸만 둘을 두었다.

이희정 위원장은 3형제 중 맏이로 어릴 때부터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항 한솔CNS의 협력업체 풍성실업에서 물류 배차 업무를 봤다. 이후 세아베스틸의 전신인 기아특수강에서도 일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서해환경 막내로 입사한 것이다.

딱딱하지만 거를 수 없는 ‘새벽 조회’

서해환경 전 직원들은 기본을 지키는 데 익숙하다. 그 것은 이희정 위원장은 물론이고 평생을 회사에 헌신해 온 박성윤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모아 성실하게 주변 정리를 해 나가는 기본을 지키지 않



직원 조회에서 이희정 위원장의 안전 작업 당부

매일 ‘조회’를 하는 (주)서해환경, 마치 군대 용어 같지만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 과정을 빼먹을 수는 없다.

그 날 그 날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아픈 직원은 없는지, 결원은 누구로 대체할 것인지 확인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중요 과정이다.

딱딱하지만 거를 수 없는 ‘새벽 조회’는 이 회사의 생명 줄과 같다.

그 시간에 맞추려고 직원들이 집을 나서는 시간은 대부분 새벽 5시 이전이다. 씻고 아침을 가볍게 먹는다 하여도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늦어도 5시30분 안에 공항로의 노조조합 휴게소 강당에서의 전 직원 조회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이 크다.

“차량마다 기사 1명에 작업 2명으로 구성되는 데, 현장 투입하기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민원사항, 유의 사항, 등



우수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서해환경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



등을 전달하기도 하죠. 하루 일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새벽 조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길거리 작업이 대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어야 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은 필수.

룡련의 지름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주)서해환경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워라벨이 별거인가요. 직장이 안정되고 일한만큼 월급을 받고, 복리후생이 잘되고, 취미 활동이 보장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면 그만이지요.”
회사는 직원들을 위하여 오식도와 월명동 도심에 ‘근로자 쉼터’를 만들었다.
예전의 ‘적화장’ 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근로자 대기실도 그대로이다. 미성동의 본사 건물 외부, 미룡동 군산대 뒷편 원당마을, 경장동 교육문화회관 옆 등 3군데에 만들어 놓았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 청소를 나가는 직원들의 경우 이 현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우수사원을 뽑아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내보내고 있다. 회사 안에 여러 봉사 단체가 만들어졌다. 직원들은 봉사 활동에도 열심이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우리가 이 일(청소원)을 하면서 나중에 느

끼는 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거든요. ‘내가 있음으로써 군산시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신입일 때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스스로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량과 함께 2명의 직원이 뛰면서 도심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보는 게 낯선 일이 아니다.
그 대 그 때 분리해서 압를 박스에 넣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직원들이 뛰면서 일 하는 건 혹시라도 도심에서 청소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될까봐서이다.
이희정 위원장과 박성윤 대표,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초심’은 룡련의 지름길이다. 그런 마음이 시민들의 가슴에 흘러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희정

(주)서해환경 노조위원장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받는 군산복싱체육관

고 김완수 관장의 아들, 2대 ‘복싱인’ 김형욱 관장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약 60년전, 군산 복싱의 대부 고 김완수 관장이 지도한 복싱선수 3명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땀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당시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일대 사건이었다.

시골 복싱체육관의 신화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 공로로 정부 표창과 함께 금일봉을 받은 고 김완수 관장이 격납고 지붕을 엮어 만든 게 바로 지금의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 1관이다.

1관 건물 안에는 그 당시부터 사용하여 왔던 낡은 링과 옛날 운동 기구들이 보존되어 있다.

격납고 체육관이 만들어진 단초가 된 68년도 ‘국무총리 표창장’은 물론 언제 붙여놓았는지 모를 ‘관원 모집 포스터’, 그리고 각종 대회 사진과 역사를 기록한 자료도 걸려있다.

오래되고 허술하지만 복싱 인재 양성의 산실(産室)로 자리매김한 이 체육관이 최근들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자백의 대가’와 ‘사냥개’ 시즌 1과 시즌 2를 연속해서 촬영했으며, JTBC의 연재물 ‘백번의 추억’도 여기에서 찍었다.

낡고 허술한 게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최적의 로케이션 장소가 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 전경



군산복싱체육관의 겉모습



군산복싱체육관 1관의 건물



군산복싱체육관의 내부 모습

영화 촬영의 성지(聖地)로 부상하는 '군산복싱체육관'

월명공원으로 오르는 길옆에 자리잡은 '군산복싱체육관' 일대가 영화 촬영으로 오랜만에 북적이고 있었다. 올 해에만 3편의 영화를 찍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역경 극복'의 로케이션 장소로 정착되어가는 느낌이다. 평일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던 동네였는데 영화 촬영 스태프들의 열기가 골목마다 활짝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복싱체육관1관은 약 60년 된 낡은 격납고를 지붕으로 얹은 건물이어서 안전 문제가 걱정스럽다. 영화인들의 '옛것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주문에 김형욱 관장은 고민이다. "지금은 체육관에서 버는 돈으로 무너지지 않게 1관을 관리하고



낡아서 걱정스러운 김형욱 관장이 체육관을 바라보고 있다



낡은 격납고 지붕



옛 모습을 그대로의 안내글



낡아서 정감이 가는 60년 된 군산복싱체육관 1관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체계적인 보존 방법이 없을까 걱정이 많죠.”

전국에 두 곳뿐인 옛날식 체육관, 가장 그림이 잘나오는 장소로 영화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있는 이 체육관이 영화 촬영지로서 뒤편할 수 있을까.

근대역사경관지구와 역경 극복의 캐릭터가 융합하는 콘텐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 군산시가 해야 할 과제 아닐까.

‘지금의 낡은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

영화 촬영의 성지(聖地)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복싱체육관’이 흥행을 몰아주는 로케이션 장소로 정착된다면 얼마나 좋을 까.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게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영화인들은 ‘지금의 낡은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 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도 체육관에 딸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김형욱 관장.

“어떻게 하면 쓰러져 가는 지금 상태를 쓰러지지 않게, 옛날 운동하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군산시가 나서주면 좋지않을까요.”

권투와 함께 살다 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오래 보존하는 게 군산 토박이 김 관장의 소망이다.

마치 60~70년이 지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체육관을 지키고 보존해 낼 수 있을까?

“형편이 좋지 않지만 더 투자해야죠. 60년대부터 복싱 인재를 키워냈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영화 촬영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을 잘 정돈하고, 타종과 샌드백 등 옛날식 운동 용구들을 더 들여놓기로 했어요.”

근대역사경관지구와 월명산 기슭의 복싱인들의 오랜 요람이 영화로 재조명되는, 말하자면 융합 문화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낡은 건물을 새 걸로 바꾸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보존하려니까 새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고 김완수 관장의 ‘인재 양성’ 정신이 배인 이 체육관이 요즘처럼 영화 촬영의 성지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김형욱 관장은 “힘없고 돈 없는 복싱인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최고의 흥행카드, ‘넷플릭스’에서 주목하는 영화촬영지

군산을 무대로 하는 영화 촬영에서 약방의 감초 격이었던 게 바로 이 체육관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물론 ‘남자가 사는 법’ 등에서도 한 장면을 차지했었으나 모두 지나간 이야기였다. 그런데 최근 주목받지 않았던 군산복싱체육관에서의 영화 촬영이 부쩍 늘었다.

최고의 흥행 카드인 넷플릭스에서 역경 극복의 로케이션 장소로 계속하여 찾고 있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지난 3월에는 전도연, 김고은, 박해수가 출연하는 ‘자백의 대가’를 촬영했다. 이 영화는 올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5월에는 이미 1천만 관객을 넘어서 넷플릭스 연재물 ‘사냥개’ 시리즈 시즌 1에 이어 시즌 2를 촬영했다.

촬영은 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한 ‘타이거마스크’(2021년)를 찍

었고, 올해 4월에는 JTBC연재물 ‘백번의 추억’(4월)을 촬영했다.

전진, 에릭, 민우 등 ‘신화’의 뮤직비디오는 물론 티브이로 방송된 ‘전국일주’, ‘동네 한 바퀴’도 찍었다.

월명동 한켠의 낡아서 눈길이 가는 이 체육관이 영화인들이 시시때때로 찾는 촬영 명소라니 놀랄만한 일이다.



자백의 대가 촬영 현장



자백의 대가 촬영, 영화배우 전도연 연기씬



사냥개 2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과 김형욱 관장



사냥개 2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과 김형욱 관장



사냥개 시즌2 촬영 스태프들



백번의 추억 촬영 현장



백번의 추억 촬영 후의 김형욱 관장



백번의 추억 촬영현장



넷플릭스 촬영 현장



링 위에서의 연기씬



‘초원사진관’에 버금가는 새로운 콘텐츠 ‘군산복싱체육관’

“월명동 체육관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찍었거든요. 그 영화의 배경 초원사진관이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군산복싱체육관 또한 이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 관광지’ 군산. 그런데 여러 도시들이 군산을 따라하면서 근대를 향한 시간여행은 이미 신비감을 잃어가고 있다.

관광 도시로의 성공 여부는 재방문이 필수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군산의 근대역사지구는 콘텐츠 부족으로 이미 스킵은 관광지로 전락하는 중이다.

이걸 극복하려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대안은 영화 촬영 장소로 급부상하는 군산복싱체육관의 스토리이다. 아련하고 아득했던 60년대의 추억을 간직한 군산복싱의 이야기와 영화 촬영의 뒷 이야기가 새로운 콘텐츠로 어필 할 수 있으리라.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추억의 한 장면들이 영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이처럼 영화 촬영의 명소가 되어가는 군산복싱체육관을 근대역사지구와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관광 명소는 만들어진다

군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초원사진관 또한 처음엔 아무도 찾지 않았었다.

약 10여년 전 근대역사 경관지구 사업들이 이어지고 근대라는 개념의 관광을 준비하면서 영화 촬영 장소로 널리 알리기 시작한 게 단초였다.

아련했던 추억을 찾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초원사진관’은 꼭 거쳐야 할 장소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군산복싱체육관’은 어떨까. 관광 명소로 가능성은 있을까.

지금처럼 영화 촬영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극복해 가는 장소로 자리 잡는 건 시간문제이다.

이미 여러 영화를 찍었으며, 지금도 유명 영화사들의 로케이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그 가능성은 입증된 셈이다.

관광 명소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SNS 등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 명소는 만들어 진다’ 라는 말이 생겼다.

인재 양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이유

오직 권투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고 김완수 관장의 유지를 이어받은 게 바로 김형욱 2대 관장이다.

그는 군산고를 거쳐 군산대 복싱 특기생으로 운동을 계속했다. 대학 졸업 이후 군산대에서 17년 동안 지도자를 했다.

아버지 시대에 뱅텀급 동양타이를 보유했다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던 이원석 선수가 수제자격이었다.

68년도 무렵의 일이었는데,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걸고 싸우는 그 자체가 대단했던 시대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아버지 김완수 관장이 이원석 선수와 서울에서 운동할 때에는 영화인 최무룡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우정이 두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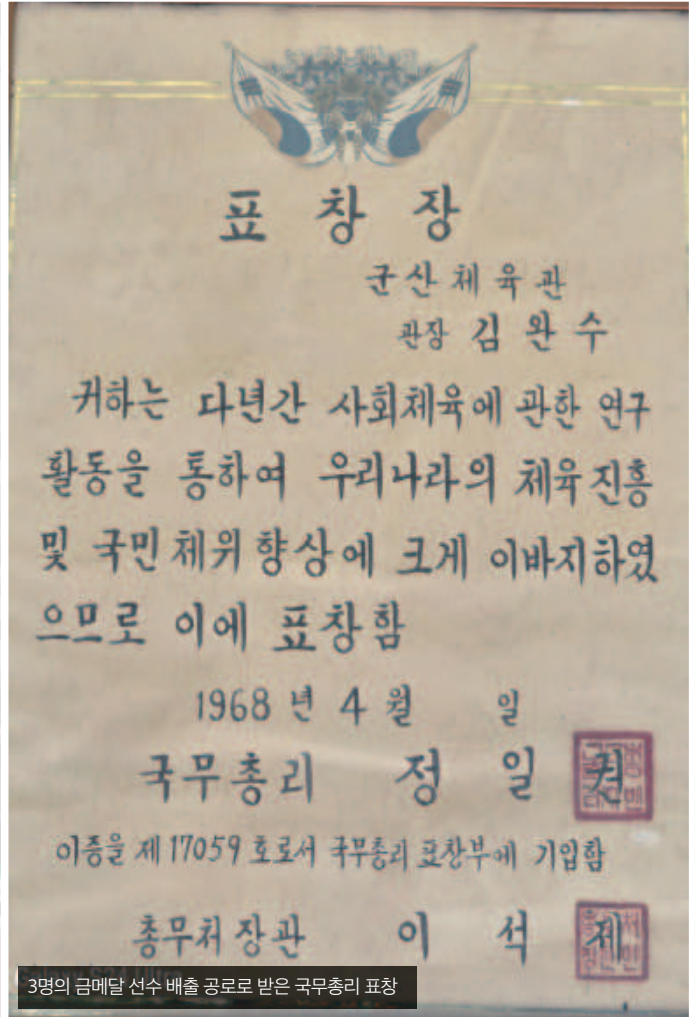
1965년 9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아세아 아마복싱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8체급을 석권했다. 대단한 뉴스였다.

그런데 챔피언 8명 중 라이트플라이급, 라이트웰터급, 뱅텀급에 출전했던 3명의 선수(서상영, 박구일, 황영일)는 당시 군산체육관(김완수 관장)이 키워냈다.

시골 군산의 한 체육관에서 3명의 챔피언을 배출했던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3명의 금메달 수상 선수들을 가리키며



3명의 금메달 선수 배출 공로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멋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시 태어나길

누구나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체육관 한쪽에 손바닥 처럼 작은 쪽방을 만들고, 우유배달, 구두닦이 등등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쳤던 군산체육관 고 김완수 관장과 그 뒤를 이어가는 김형욱 관장.

“선수를 육성하는 건 지도자로서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기본기를 갖추어 가고 스스로 운동

하고 관리하는 즐거움을 알아갈 때 관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군산 사람들의 역경 극복의 현장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군산복싱체육관. 그걸 지켜가는 김형욱 관장.

이 체육관이 오래 보존되고, 영화의 멋진 장면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군산체육관 1관(월명안길 8, 동신교회 옆)
군산체육관 2관(나운동 하신3길35)
김형욱 관장 (010-5608-7721)



'나누리 봉사대' 전략배 회장

“봉사할수록 행복하다-나눔의 기쁨 함께”
친목보다 순수한 봉사활동 지향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400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새만금방조제와 비응항 주변에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면서 시작됐죠. 당시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이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매번 대형 쓰레기봉투 50장 이상 필요했고 비용은 회원들이 100% 자부담으로 충당했다. 항상 쓰레기 양이 많아 도중에 멈출 수가 없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힘들지만 처리 방법도 큰 어려움이었다. 2023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 1t 대형 bag에 담아 일괄적으로 수거해가는 것이 봉사대가 거둔 성과이자 보람이다.



‘나누리봉사대(회장 전락배)’는 2022년 3월 1일 창단하여 그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회원 모두가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아주 우연히 시작한 봉사가 봉사단 창단의 계기가 되고 이젠 일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누리봉사대 선두에 전락배 회장이 있었다.

“처음에 45명이 단합하여 출발했죠. 지금은 80명의 회원이 봉사활동에 전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투적이란 표현이 맞다. 회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 매월 약 40여 명이 현장에 참여한다”
 “개인적으로 봉사 400시간부터 봉사의 참맛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웃음). 회원 중엔 1천 시간을 넘긴 분도 있어요. 대단하죠!”

수해복구 활동 기억,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처음 시작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외에도 지금은 각 복지관 급식 봉사, 연탄배달, 수해복구 등 그동안 활동 영역과 대상도 다양하고 넓어졌다. 전 회장은 “수해복구 활동 기억이 좀 남다르다. 그동안 지역 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지역(가구)에 들어가 활동했는데 보통 10명 정도 대원들이 한 조가 되어 밤 10시까지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한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와 물품들이 부족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쓰레기 철수 작업이나 복구작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봉사 현장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며 “봉사대도 앞으로 수해 현장과, 한순간에 큰 고통과 어려움에 닥친 이웃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군산시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의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수해복구 개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많은 봉사자들과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수데이



‘국수데이’ 잔칫상 벌여, 기부봉사도 병행

지난 5월 28일 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보경)에서 ‘나누리봉사대와 함께하는-우리동네 음식대장 사랑의 밥퍼 국수데이’가 열렸다. 군산청소년문화의집이 10여 년간 이어온 대표적 지역연계 행사인 국수데이에 나누리봉사대가 전격 참여한 것이다.

봉사대 회원 13명의 지휘 아래 청소년아카데미 <희망터> 청소년들도 봉사의 손을 부지런히 거들었다. 처음 예상한 150명을 훌쩍 넘어 지역 어르신과 대만 청소년과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 군산제일중학교 학생들을 포함, 2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그야말로 동네를

넘어 국제 잔칫날이 된 셈이다.

전 회장은 “문화의집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력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함께 온기를 전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정말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9월에도 한 차례 추가 봉사가 있고 기부 봉사도 결합하여 풍성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6월 1일은 봉사대 3주년 기념식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졌다. 올해부터 기부 봉사도 함께 하고 있다. 300만 원의 기부금과 자전거 1대, 선풍기 3대, 손목시계 3개 등 기념품을 맞아 대상자에게 소중히 전달했다. 봉사 끝에 보람의 연속이다.



지역활동



친목보다는 순수 봉사활동 지향

전략배 회장은 현재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로 활동 중이다. “봉사대는 2024년 비영리사업자이며 센터에도 등록했다.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완벽히 갖췄다”

‘장기 기증 캠페인’, ‘은파 둘레길 플로깅’, ‘숨 쉬는 소공원-맑고 밝고 안전하게’ 등 봉사대가 앞으로 실행할 봉사 분야이다. ‘숨 쉬는 소공원’ 봉사는 조촌동 소공원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꽃길을 만들고 청소하고 환경정화를 하는 활동이다.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봉사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 사람이, 봉사자가 부족하다. 공용주차장 관리 봉사활동도 센터에 제안한 상황이다.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할 생각이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서로 격려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여성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3년 만에 1천 2백만 원을 적립했다. 회원들의 회비는 매월 식사비 정도에 한한다. 이사들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성원을 받는 이상으로 열심히 봉사할 각오다. 회원들이 친목 보다는 오로지 봉사의 한 마음에 집중한다”

전 회장은 “여러 기관장이나 단체장으로부터 ‘남다르다. 봉사 현장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다. 특별하다’는 평가와 격려를 많이 받는다. 봉사 영역을 넓히고 기부 봉사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수해복구 등 어려운 현장에도 회원들과 함께 할”것이라며 “봉사 현장의 열악함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기에 회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한다.

전략배 회장은 현재 조촌동에서 자동차용품 관련 자영업(3M 전진카용품)을 하고 있다. 매장 2층에 나누리봉사대 사무실을 두고 있다. 봉사활동이 많은 만큼 사무실이 가까워 여러 가지 잇점이 많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쁨의 봉사 현장에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나누리봉사대의 힘찬 행진을 바랍니다.

3M Auto Beauty Proshop 전진카용품

군산시 조촌동 828-9

063-452-2858

010-3374-1919

32년 외길, 근면 성실로 성장해 온 '대성건어물' 김현순대표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군산 해망동 건어물 직판장, 이곳에서 32년째 영업 중인 대성건어물 김현순 대표의 탁월한 영업 수완은 익히 정평이 나 있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이면에는 뭔가 남다른 비결이 있기 마련으로 김현순 대표 역시 개업 이래 초심을 잃지 않는 부지런함과 정직한 자세의 고객 관리로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기반을 다진 케이스다.

오식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잠시 미용사 일을 했던 김 대표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 포기한 뒤 택한 것이 건어물상이었다. 생선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그녀에게 건어물상을 권유한 것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당시 큰 규모의 수산물 사업을 하고 있던 그 지인의 도움으로 김현순 대표는 리어카를 마련, 노점상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건어물과 영업 전반에 관해 배웠다. 생소한 분야라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었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건어매장



신축 건어물직매장 조감도

약 10여 년의 노점상에서 벗어나 지금의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매장에 입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3년도. 당시의 이 노후 건물은 미관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올해 초 철거하고 현재 신축 공사에 들어가 약 28개 업소가 3월부터 임시 매장에서 영업 중으로 빠르면 9월 완공 후 신축 매장에 입주하게 된다.

시는 총 공사비 34억으로 1층 규모 기준 790m²(약240평)에서 824m²(약250평)로 다소 확장하는 신축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그리고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적용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점포 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 신축 이전 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서해의 대표 수산시장으로 자리 잡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시장 선정 등 다방면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어물매장이 완공되면 상인과 시민 모두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

록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에 임시 매장 설치와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상 아이뉴스 김양근 기자 기사 일부 인용)



건강먹거리를 표방하는 대성건어물의 진열대를 가득 채운 건어물들은 참조기, 참박대, 갈치, 병어, 참장대, 참홍어, 우럭, 민어, 돔, 간재미, 가자미, 고갈비, 삼치, 놀래미, 아나고, 반건 물메기, 신대, 풀치, 건조복어, 건조망둥이 외에도 마른오징어, 반건 조오징어, 김, 멸치, 꿀뚜기, 장죽, 건새우, 쥐포, 아귀포, 물메기 채, 미역, 다시마 등등 거의 50여 종에 달한다.

필자가 취재를 갔던 날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객들로 김 대표는 잠시도 의자에 앉을 틈이 없었다. 그 고객들 대부분은 오래

된 단골들로 보였다. 실제로 김 대표를 잘 아는 지인과 주변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성건어물이 매년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들려준다. 개업 초기부터 곁에서 지켜본 김 대표는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항상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면서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만을 취급, 정직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쌓고 억척스럽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들의 몇 배가 되는 단골이 확보되었으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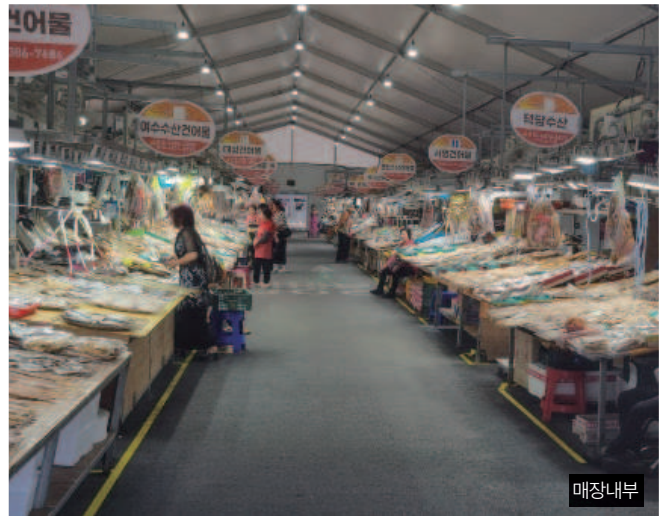
고객을 맞고 있는 김대표



김현순 대표



대성건어물 어반스케치(신지현 작가)



매장내부

지금은 구매 세태도 변해 택배 주문량이 전체 판매량을 상회할 만큼 증가 추세다. 그러나 초창기에 비해 산술적 매출은 늘었지만 부자재 비용, 세금 등의 인상률을 따지면 실질적 이익은 감소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귀띔이다.

거래 대금도 지금은 카드 결제가 90%, 현금 매출이 10%일 정도로 온라인 방식으로 세태가 바뀌었다는 그녀는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용해 주시는 고마운 단골손님 덕으로 먹고산다며 웃음을 보인다.

장사 초기에는 수차 흥정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반사로 여긴다면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머잖아 아들(김대성 씨)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건강을 돌보며 살고 싶다는 김 대표, 오랜 단골들과는 마치 친언니, 동생 같은 친분이 쌓여 저마다 선호하는 상품과

구입 물량까지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면서 그 한분 한분이 너무도 고마운 고객이라고 들려준다.

매주 정기 휴일인 화요일에는 병원에 다니거나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는 그녀는 과거 건강했던 시절 연말이면 사회봉사 차원의 후원도 적잖이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 문제로 마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며 마침 매장에 들어서는 고객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느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대성건어물’

군산시 내항2길216(해망동 수산물센터)

T.063)445-0940/전국택배가능

영업시간 07:30~18:30

*매주 화요일 휴무



‘철릭(綴翼)한복’ 디자이너 박정미

군산의 봄 철릭 한복 패션쇼
“일상에서 즐기는 멋과 여유”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특별한 Fashion Show...

지난 15일 ‘희희호호아트센터’에서 철릭한복 패션쇼가 펼쳐졌다. ‘군산의 봄 철릭한복 패션쇼! 근대마을 속으로 스며들다’ 주제로 특별하고 화려한 패션쇼다.

디자이너인 박정미 선생의 철릭한복 의상 50점과 직접 디자인과 제작을 도맡아 한 모자, 가방 등 다양한 소품을 선보인 멋진 무대가 이어졌다.

27명 모델들이 참여하여 자신만의 옷맵시와 멋진 포즈를 아낌없이 런웨이에서 뽐냈다. 박수갈채가 내내 끊이지 않았다.

‘여행’, ‘일상’, ‘나비’, ‘무사’ 4가지 컨셉으로 구성한 무대는, 작가의 철칙한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짙게 배어있다. 모델로, 진행 도우미로, 갤러리로 참여한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했다. “동네 마을 잔치하듯 푹푹하고 신선한 재미와 웃음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철칙의 명가 꼬매미 주최하고 ‘군산문화관광재단’과 ‘매거진군산’이 후원한 늦은 봄 패션쇼의 멋진 장면을 이번 호에 특별하게 담았다. 군산의 오래된 맛이 새롭게 기억되길...



축사 - 송미숙 시의원



축하공연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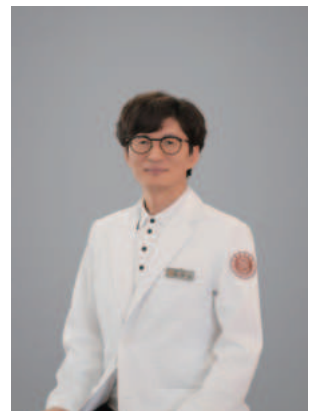
한방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 노블한방병원, 통합진료와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공간

글 | 이영미
yem1022@hanmail.net

군산 수송동, 문화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새롭게 들어선 병원이 시선을 끈다. 말끔한 외관, 층마다 분리된 기능 공간, 라운지 한편에는 회화 작품이 조용히 걸려 있다. 처음엔 단순한 확장 이전인 줄 알았지만, 이 병원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노블한방병원(병원장 최연길)은 2025년 4월, 군산 문화로 153번지로 이전하며 치료 중심의 공간에서 회복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치료를 넘어 회복으로'라는 철학은 병원의 구조, 진료 시스템, 예술적 감성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병원을 진료와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의료인, 최연길 병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 최연길 병원장

“환자가 머무는 병원, 회복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블한방병원은 2025년 4월, 군산 문화로 153번지에 새롭게 동지를 틀며,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회복을 위한 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 철학을 실현하기위해 진료 시스템, 공간 구조, 그리고 예술적 감성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다.

한방병원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까지 돌보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공간 곳곳에 스며 있다.



2·3·4층 편의시설을 갖춘 라운지, 맨발로 걸을수 있는 인조 잔디의 옥상정원

노블한방병원은 한방과 양방의 협진 체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임, 산후관리, 아토피, 비만, 성장, 중풍, 치매, 척추·관절질환까지 현대인의 주요 건강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과를 세분화하고, 양방 기반의 도수치료, 면역 주사, 스마트 암검사 등 기능의학적 접근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약·운동·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회복 중심 진료 체계가 병원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변화는 공간 설계의 방향성이다.

1층은 환자 편의를 위한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약 40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 가능하고, 2층은 외래 진료와 물리치료, 3층은 4인실 병동, 4층은 2인실과 1인실의 프라이빗 병실로 구분된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인실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건식 화장실을 설치 했다. 각 층마다 테라스가 준비되어있고, 5층 옥상은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일상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외래 라운지에는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과 협력한 상설 전시공간 ‘갤러리 노블’이 운영된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환자와 방문객이 일상처럼 예술을 마주하고, 치유의 환경 속에서 정서적 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전시는 동양화가 이용석 교수의 《정원-꿈》 시리즈.

작가의 내면적 상징이 병원의 회복 철학과 겹쳐지며,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의 시간을 건넨다.



도수 재활치료실



도수 재활치료실



4인 병실



1인 병실



병원의 위치 또한 깊은 고민 끝에 정해졌다.

군산은 최근 몇 년간 상업과 의료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수요는 도심과 생활권 전반에 여전히 존재한다.

문화로 153번지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복잡한 시내와 거리가 있어 소음이 적고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의료 공간으로서의 정서적 조건도 만족시킨다.

‘치료가 기능이라면, 회복은 태도다’

“병원은 단지 질병을 고치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감정을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블한방병원의 최연길 병원장은 말한다. 진료실에서, 라운지에서, 그림 앞에서. 노블한방병원은 환자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작은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철학의 중심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선으로 병원을 이끄는 최연길 병원장이 있다.

노블한방병원 진료과

1과: 불임, 산전·산후관리, 알러지 비염, 아토피, 비만클리닉, 매선요법, 심부약침

2과(한방내과): 중풍, 화병, 치매, 성장클리닉, 척추·관절질환, 추나요법

3과(침구과): 비만, 척추·관절, 추나요법, 도침요법, 매선요법

4과(한방재활과): 척추·관절질환, 맞춤 운동요법, 재활요법, 추나요법

의과 협진: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 도수치료, 암 면역주사, 수액치료, 스마트암검사, 알러지검사 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50110-중-68918

수술후 재활 / 디스크 / 협착증 / 산재 / 암 / 교통사고 후유증



노블

한의학 · 의학 협진
한방병원
NOBLE hospital of Korean medicine

야간진료 - 평일 오후 8시까지

이전안내. 미래와여성의원 앞 문의. 063.452.1075



근대사의 흔적이 살아 있는 곳 군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역사

근대역사박물관 중심으로

글 | 박세원
hamp38@hanmail.net

강이 내려다보이는 구암동산자락에 오르자 ‘군산3.1운동역사공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한강 이남과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1919년 3월 5일 거사) 발원지로서 우리 군산의 자랑스러운 민족 역사 유적지이다. 군산은 어느 동네를 걸어도 역사적 의미 있는 풍경이 된다. 망종이 지난 들녘엔 모내기가 끝나 푸릇푸릇 채색 된 모들이 눈물에 잠겨있다.

이곳 구암교회는 1892년 미지의 땅 군산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미국에서 조선에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다. 군산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고 군산 근대화에 공헌했던 선교사들의 업적은 실로 군산근대화의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암 언덕에서 내려와 강변을 따라 시내로 들어가면 석양에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강바람을 맞으며 금강변의 물줄기를 따라 뚝방길을 걷노라면 저만치 채만식 문학관이 보인다.

“금강…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찌져 가지고는 한강이나 영산강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만식의 『탁류』의 첫 장에 나오는 장면이다. 1930년대 그 시절의 아픔을 담은 채 흐르고 있는 금강, 그 물은 흘러 논바닥을 적시고 만경강과 만나 기름진 평야를 만들어 낸다. 채만식 문학관을 둘러 본 뒤 강변을 따라 중동으로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 때 굶주린 소작농들이 미곡을 가장 많이 반출 한 곳, 사연 많은 짚보선창을 거쳐 몇 발짝 더 걸어가니 부잔교가 바닷물에 제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다.

금강의 흐름과 함께 군산의 흔적을 찾아 들어간 곳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었다. 특별히 연휴가 많았던 5월과 6월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방문한 가족단위 관광객부터 레트로 감성과 근대문화유산을 감상하겠다는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김중규)은 한 해 관람객 100만을 돌파하고 전국 공립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14년간 누적 7백만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명실상부 군산관광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고, 관람객 수가 매년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며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기획 전시 및 특별전은 물론 맞춤형 역사, 문화 스토리를 담은 교육 체험 제공 등 문화공연 확충의 노력으로 근대역사 박물관에 가면 볼거리가 넘친다는 소문이 난 곳. 마케팅 활동이 작용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는 군산의 랜드마크 박물관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각 전시장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수학적행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각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 박물관의 매력을 찾아 떠나보아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개관 14년 만에 굵직굵직한 이력을 남기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함은 바로 “시민과 함께 한다”라는 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유물을 포함한 3만여 점의 방대한 유물은 바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역동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박물관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박물관 벨트화 지역으로 구성·운영

군산시는 조선은행, 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박물관 벨트화 지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근대역사를 학습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특화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박물관 내 ‘1930년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근대 생활관은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건물들과 군산에서 가장 변화한 영동거리를 재현하고, 그 안에 전시와 체험 그리고 교육을 담아냄으로써 남녀노소 구분 없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래민속놀이, 체험교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발히 한 점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박물관 벨트화 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기획전 및 특별전은 연 25여 회 개최되는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특별전’은 매 분기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날행사



전시장



근대생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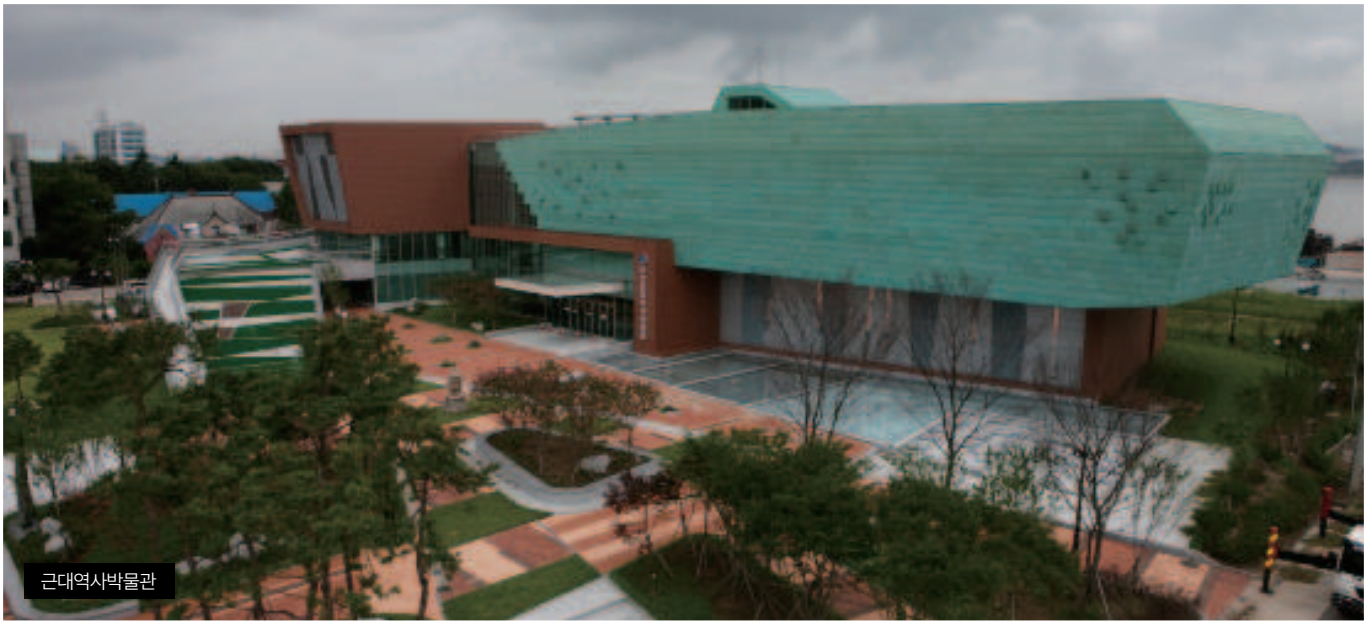


지역예술인들이 만드는 열린 마당

민요 및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인형극, 연극 공연 등 연 90여 회 이상 개최되는 다양한 근대문화공연은 근대역사박물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일제 무단통치와 경제수탈 하의 소시민 삶과 애환을 재현한 연극과 투호, 제기차기 등의 다양한 전통 전래놀이체험과 음악공연, 마술 공연 등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외부 공연 무대 또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버스킹 무대가 되고 있다.

2024년에는 <흙에 심은 사랑의 입술, 쌍천 이영춘>, <꽃피는 봄이 오면>,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이 개최되었다.

시민열린갤러리 및 장미갤러리 등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전시공간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산시민 또는 군산지역 소재 단체 등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재조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근대역사박물관



박물관 야경

금강권 전시장 재생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박물관의 관람객들에게 원도심을 벗어나 금강권 전시장(3.1 운동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철새조망대)으로 안내한다. 금강권 전시장은 7군대를 통합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각 전시관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및 5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의 차별화된 사업들은 군산의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근대문화도시 군산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진풍경을 연출하며 우리 역사와 근대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

었다.

폐관 시간이 다 되어 군산근대사박물관을 나왔다. 구암동산 3.1기념관 입구 돌담에 새겨진<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귀가 떠오른다. 군산의 골목길, 월명산, 금강의 물줄기, 해망동 어부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모두가 우리 역사의 자원이다. 과거는 근대, 현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채만식문학관 : 군산시 강변로 449

근대역사박물관 : 군산시 해망로 240

군산 3.1운동 기념관 : 군산시 영명길 29

르네상스미술 -1. 피렌체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미술의 흐름은 종교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오던 중세 미술시대의 침체기를 벗어나 '예술의 황금기'로 불리는 '르네상스(14세기~16세기)'를 만나게 된다.

'르네상스(Renaissance)'는 프랑스어로 '재탄생' 또는 '부활'을 뜻하는 말로 해석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 철학, 예술 그 이상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발상지는 어느 곳일까. 르네상스의 시작은 오랫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꽃의 도시'라는 뜻의 '피렌체'이다.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과 예술로 유명했으며 15세기에 시에나, 움브리아,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각지로 퍼져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과 북부의 페라라, 로마 등지에서 그 활약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르네상스가 예술의 부흥을 일으키는 구심점을 마련하게 된 것일까. 앞서 칼럼에 기고한 중세시대 천년은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기에 다소 경직된 예술품이 남겨진 것이다.

그러나 14세기 말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통해 그 질서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감각, 현실이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이 예술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인간미 넘치는 르네상스의 미술 특징은 무엇일까. 초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묻기 시작했고, 고대 미술에서 남겨진 아름다운 신의 모습을 만들어낸 인체의 완벽한 비례, 해부학적 사실성, 수학적 조화를 다시 소환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 분위기는 자연스러웠으며 색채가 살아났고 또한 '원근법'을 통해서 공간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진 시기를 '콰트로첸토시기'라고 한다. 400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이며 통상 미술사의 시대 구분에서는 1400년대, 즉 15세기 이탈리아의 문예부흥기로 불린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화가 3인방을 소개 하겠다. 화가 마사초와 보티첼리, 조각가 도나텔로 이다.



성삼위일체 1427년경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마리아 성당

처음 소개할 미술가는 '마사초'이다. 본명은 '토마소 디 조반나'(1401~1428)이며, 이탈리아 출생으로 르네상스 초입의 대표적 화가이다.

'마사초'는 조토 이후에 인체를 자연스러운 동세 표현하여 진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최초의 화가이다. 이것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성삼위일체'에서도 드러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그려진 '성전세'라는 작품에서도 그 의도가 다분하다.

마사초는 고대 로마,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러운 사실 그대로의 묘사에 집중하였고,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와의 교제를 통해 '원근법'을 도입하기 시작 하였다.

이렇듯 공간과 신체 고유의 수학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3차원적인 묘사, 단일한 빛의 구사를 통해 고딕 미술과는 차별화된 발전을 거듭 하였다.

'성삼위일체'는 이러한 바탕위에 '원근법'을 통해 그려진 최초의 회화이다.



비너스의 탄생 1485년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두 번째 미술가는 '산드로 보티첼리'(1445~1510)이며 이탈리아 출생이다. 이 역시 르네상스 전기의 대표 화가이다.

보티첼리는 고대의 신화적인 주제를 선호 하였다. 인체의 근육질과 인물상 역시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과도한 치장과 힘찬 선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비너스의 탄생'은 대표적인 작품으로써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인 비너스가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탄생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조가비를 타고 있는 주인공 비너스와 정신적인 사랑의 상징인 '제피로스(서풍)'가 날아오듯 해안가로 다가오고, 반대편에서는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계절의 여신)'가 흩날리는 꽃무늬의 천을 건네는 듯한 스토리이다.

'비너스의 탄생'의 또 다른 관점은 르네상스 시기의 다른 화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엄격한 고전적 사실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미술가는 '도나텔로'(1386~1466)이다. 그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적 조각가이자 미켈란젤로 이전의 최대의 조각가로 소개 된다

도나텔로 역시 인본주의적인 표현의 선구자로서 15세기 이탈리아 미술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초기 이후의 모든 조각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선례로 도나텔로의 '청동 기마상'은 이후 세워진 모든 기마상들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다윗(다비드) 1440년경 청동 높이158cm
이탈리아 피렌체 바르셀로 미술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업을 했던 그는 1408년~1409년경 메디치가의 정원에 기념비적인 작품 하나를 남겨두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나체상으로써 조형물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제거한 형태의 독특한 조형물인 '다윗'을 출현 시켰다. 이 조각상은 피렌체 국제 고딕 양식이 보여주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 양식의 특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었다.

이렇듯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시작으로 점차 유럽 전 지역으로 이어지며, 훗날에는 바로크 시대의 미술에 뿌리를 내리기에 이른다.

예술의 황금기 르네상스의 초기를 시작으로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의 두 번째 시간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 전성기를 만나 보도록 하겠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장강명 외. 『킬러 문항 킬러 킬러』한겨레엔, 2024.



현재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병입고환(病入膏肓)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중증 질환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 문제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망국병'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그 병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실제 교육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교육 문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현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교육 문제의 병증은 위중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이창용 총재는 2024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강남의 사교육 경쟁이 집값과 가게 대출을 밀어올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그 해법으로 강남 출신의 대입 상한선 도입과 같은 과감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들 한다. 한 국가의 근본과 근간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 공사가 될 정도로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 문제가 변화와 개혁의 단골 어젠다로 부상하는 것도 교육의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백년대계에 걸맞은 장기적인 비전의 청사진을 반영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시행한 적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교육 개혁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나선 관료나 전문가들이 경쟁적으로 백가쟁명의 갑론을박을 벌이며 의욕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바꾸곤 했지만 한 번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적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짐작컨대 학력이나 학벌이 무소불위의 상징권력으로 군림하다시피 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복잡하고 중층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독서 칼럼 대상 텍스트로 『킬러 문항 킬러 킬러』를 소환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 제목에서부터 냉소의 기운이 다분한 이 책은 장강명이 발기한 월급 사실주의 동인들을 중심으로 한 14명의 작가들이 “슬프고 괴롭고 기괴한”(7면) 한국의 교육 현실을 소재로 연재한 아주 짧은 분량의 소설들을 한자리에 엮어놓은 앤솔러지이다.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 문제는 무엇일까? 그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병리적 증상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 통렬한 문제의식과 묵직한 돌직구를 던져온 김누리는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라는 칼럼에서 교육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educate) 것이며, 둘째, 인간의 존엄성(dignity)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 셋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성적인 인간을 기르고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육은 그러한 방향과는 정반대의 역주행을 질주하면서 승자는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가 되고, 패자는 평생 굴욕감을 품고 사는 무기력한 대중이 되어버리는, 한마디로 승자와 패자 모두 패자로 전락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김누리의 진단이다. 그 진단의 연장선에서 그는 한국 교육의 문제와 과제로 “킬러 문항이 아니라 킬러 교육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고, 개성을 죽이고, 시민성을 죽이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킬러 교육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김누리,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 <한겨레>, 2023. 7.5)을 들고 있다.

정곡을 꿰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만한 게 14편의 소설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초점인물들은 김누리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원군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 바보냐?”

국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호소하자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인지, 정확하고 비판적인 느낌인지, 그런 걸 왜 생각해?”.....

언니의 요지는 이랬다.....무조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가장 ‘전형적이고 뻔한’ 답을 골라라. 그래야 정답을 맞힐 수 있다. 언니의 표현에 따르면 ‘개인 신조 금지, 개성 발현 금지’만이 살 길이었다.(정아은, 「그날 아침 나는 왜 만 원짜리들 앞에 서 있었는가」, 58면)

두 자매의 대화 중 언니의 진술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너무나도 선명하다. 대상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정서나 해석을 묻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상투적인 지식만을 요구하는, 그로 인해 “아이들의 고유한 잠재력을 개발하기는커녕 머릿속에 죽은 지식을 쳐넣는 것을 교육”(김누리) 이라고 불려온 한국 교육의 일그러진 초상을 심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외국의 지도교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너의 생각이 무엇이나?’는 것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이나 해석을 길러주는 교육보다는 ‘경쟁 지옥’(53면)인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나 정답만을 맞추는 기계로 만드는 한국 교육의 문제가 누적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체화하면서 김누리의 지적을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들은 언니 말고도 이 작품집에서 차고도 넘친다. 그 전형은 자녀 사랑이라는 명분과 방어기제를 동원한 맹목적인 과잉 교육열로 인해 자녀들을 불행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으로 일하는 자신의 월급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인의 수입을 합해야 겨우 감당이 되는 나의 검정고시 및 재수 기숙학원 비용을 대기 위해 엄청난 무리를 하는 부모들(이기호, 「학교를 사랑합니다: 자퇴 전날」, 20면), 수능 당일 아침에 먹는 용도로 한 알에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는 차세대 집중력 강화제의 복용에 저항하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런 풍토를 이해하고 위선자가 되어야 하는 순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다. 규정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경쟁에서 점점 밀려나 나중에는 아예 게임에 끼질 못하게 돼”(장강명, 「킬러 문항 킬러 킬러」, 37면)라는 승자 중심의 세계관과 논리로 접근하는 대학교수 아버지와 치과의사인 어머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하고서도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살려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서울대학만을 강요하는 어머니(정진영, 「덜 싸우고 덜 상처받는 전략」)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이들처럼 과도한 교육열로 자녀를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인물은, “나약한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더 강한 상대와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난하고 게으르고 약한 것들과는 어울리지 말라 하셨죠”,(164면) “학원을 다섯 개나 다니면서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에 완전히 지쳤어요. 정말 살 수가 없었다고요. 기계처럼 문제 푸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명문 대학 나와서 뭐 해요?”(171면)(염기원, 「지옥의 온도」) 라는 아들 민준의 항변과 읊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으며 일류 대학을 나와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세계관과 뒤틀린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아버지의 강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만든 아버지에게서 그 정점을 이룬다.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인 학부모나 자녀,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점이다. 영어유치원을 비롯하여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짊어져야만 하는 부담은 엄청나다. 헌신과 희생을 담보로 한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짓눌린 학생들의 부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자해나 자살과 같은 불행한 일들은 상당 부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교육 환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르몽드)로 성장하는 아동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세상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심정이나 마음이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올바르거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와 금기가 있는 법. 부모들의 자식 사랑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법. 자녀 사랑과 관심에도 중용의 도가 필요한 법이다. 그 방법 또한 자녀들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모들은 한번쯤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 자녀들의 재능이나 적성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의 의사나 관심 또한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project)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는지? 자녀들을 자신들의 허영이나 자존감을 보상해주는 매개나 수단으로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폭력을 넘어 학대가 되어 자녀들을 불행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환기하면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근화일일자위영(槿花一日自爲榮)이 전해주는 창업가 정신



많은 창업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손님을 많이 끄는 것이 창업자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자의 멘탈이 단단해야 한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하면 사업 아이템, 상권, 인력 관리 등을 떠올리겠지만 이것은 정답의 근사치일 뿐 정답은 아니다. 필자가 중요시하는 창업가 정신은 처음 창업을 하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 할 창업제일의 조건이다.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 순간부터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어떤업종의 창업을 할 것인지, 점포를 어디에 오픈을 할 것인지, 종업원은 얼마나 두어야 하는 지 등 신경 써야 할 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하게 되었다면 과연 마음이 편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온갖 걱정과 고민들이 매시간 매초마다 창업자를 찾아온다. 어떤 업종이건 창업을 하고 난 후 창업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매일 영업실적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창업 자체를 후회하며 일희일비하는 창업자들이 많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오랜 기간 창업을 해왔고, 남들을 돕기도 하며 그런 사례를 술하게 경험해봤다. 그래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수없이 맞닥트리게 되는 창업의 다양한 이슈들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다. 초보 창업자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여유자금이다. 창업자들은 창업을 할 때 절대 자신이 가진 물질적 인프라를 넘어서는 창업 아이템과 점포를 선정하면 안된다. 6개월 정도 수입을 벌 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 과감한 마케팅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 챙기면 금상첨화다. 그렇지 못하면 창업 후 하루하루가 위태로워진다. 손님 입장에서 잘 먹고 가는 손님을 기분 좋게 배웅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만 쳐다보며 한숨만짓는 사장이 있는 점포를 어찌 다시 가겠는가? 사장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손님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또한 갑자기 자라난 욕심에 함부로 사세 확장을 하면 안 된다. 창업 전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두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성공을 보장 할 수 없다. 현대 손님이 많다고,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점을 늘리고 사세를 확장하다가 모 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맛집에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란 그 확률이 극히 적다.

근화일일자위영(槿花一日自爲榮). 중국 중당의 시인인 백란천의 칠언율시<방언> 5수 중의 첫 수에 실려있는 시구다. 하루 동안의 영광을 한탄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영화는 무궁화꽃과 같이 하루 동안 피었다 지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의 성공과 실패를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백란천의 시구에서 초보 창업자들이 알아차려야 할 것은 바로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는 고결한 마음이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북한의 국화(國花)



6월 초, 깊고 높은 가야산 산행을 했다. 가야산은 함천 해인사가 자리한 곳으로 유명한 산이다. 그 산행 속에서 만난 많은 꽃 중, 우아함이 총만한 함박꽃나무를 소개한다. 산목련이라 불리기도 하는 함박꽃나무는 이맘때 흰 꽃잎 속 붉은 꽃밥이 돋보이며, 은은한 향기로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홀로 돋보이는 것이 쑥스러워서일까, 꽃은 아래를 향해 피어 있다. 푸른 잎 사이에서 꽃들끼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어 있는 모습은 마치 안분지족을 실천하는 듯하다.

이름은 함박꽃이라 불리는 작약을 닮아 붙여졌다. 환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함박 웃음을 연상케 한다. 함박꽃나무는 북한의 국화로써, 북한에서는 나무에 피는 란(蘭)·목란(木蘭)이라 불린다. 김일성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어디에서든 함박꽃나무를 쉽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산행 중, 애벌레가 뚫고 들어간 구멍이 보이는 함박꽃나무 꽃봉오리를 발견했다. 이 봉오리도 꽃을 피울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건다 보니, 다른 나무에서 마침 그런 봉우리가 핀 꽃을 보았다. 꽃잎마다 동그라미를 가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활짝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며 “애벌레를 먹여 살리느라 애썼네.” 하고 사진에 담았다.



신재순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역사강좌‘삶과 민속이야기’운영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운영...
6월 2일 10시부터 전화접수 시작

박물관 역사강좌
- 삶과 민속이야기 -

- 일 시 2025년 6월~11월, 셋째주 목요일 / 14:00~17:00
- 장 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층 규장각실
- 접 수 6월 2일(월) 10시부터 전화접수(☎063-454-7876)
※ 선착순 접수 마감
- 대 상 성인 30명(회당)
- 문 의 ☎063-454-7876

강의일정

회차	일 정	시 간	주 제	강 의 자
1	6.19(목)	14:00~17:00	한국의 가택신앙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	7.17(목)	14:00~17:00	한국인의 세시풍속	최진아 한양대학교 교수
3	8.21(목)	14:00~17:00	한국인의 통과 의례	전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4	9.18(목)	14:00~17:00	옛이야기의 재미와 의미, 그리고 재창작	임재해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5	10.16(목)	14:00~17:00	별과 민속종교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6	11.20(목)	14:00~17:00	전통 놀이문화	정형호 무형문화연구원 이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무더운 한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7월 17일 2회차 강좌는 ‘한국인의 세시풍속’으로 한양대학교 최진아 교수가 진행한다.

이후 ▲3회차(8월 21일) ‘한국인의 통과 의례’는 전 국립민속박물관 전진기 관장 ▲4회차(9월 18일) ‘구비설화’는 안동대학교 임재해 명예교수가 ▲5회차(10월 16일) ‘별과 민속종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일권 교수가 강의한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강의인 11월 20일 6회차 ‘전통 놀이문화’는 무형문화연구원 정형호 이사가 대미를 장식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민간 생활과 관계된 삶과 풍속, 신앙과 문화 등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역사강좌는 대면 강좌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로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각 회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박물관 관리과(063-454-7876)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삶과 민속이야기’ 역사강좌를 2층 규장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 민속을 주제로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과 통과 의례, 가택 신앙 등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총 6회로 구성된다.

첫 시작을 알리는 6월 19일 1회차 강의 ‘한국의 가택신앙’은 전남대학교 나경수 명예교수가 맡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군산시, 대체단백질 산업화위해 특수콩 본격 도입

하영콩 품종 통상실시권 계약체결 및 관내 농가-콩 가공 기업체와 계약재배 실시



군산시가 식물성 대체단백질 산업화 추진을 위해 가공용 특수콩 품종 도입 및 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품종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하영콩' 품종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단콩' 품종이다. 시는 두 품종을 도입해 관내 콩 재배 농가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하영콩'은 일반적으로 콩의 비린내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품종이다.

가공적성과 맛도 기존 품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특수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더플랜잇이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다.

함께 도입되는 '대단콩' 역시 고단백 국산콩 품종으로, 두유 및 고형 단백질 가공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1일 가공용 콩 산업 추진의 첫 시작으로 군산시 농업인회관에서 (주)더플랜잇(대표 양재식)과 '하영콩'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가 실시자로서 참여하며,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더플랜잇이 권리자로 계약에 나선다.

또한 계약을 통해 신품종 '하영콩'에 대한 재배·가공·판매 전반의 권리를 확보했으며, 특히 농가가 직접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재실시권 부여와 가공 및 판매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 내 농식품 가공 업체들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

른 타 작물 재배 확대에 발맞춰,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생산되는 콩의 가공·유통을 다각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체단백질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외 3개 콩 가공 관련 기업체(더플랜잇, (주)팔알, 대방영농조합법인)와 협업하여 지역 콩 재배 농가와 청년창업인이 참여하는 가공용 특수콩 계약재배 단지도 육성한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탄소중립 도시숲 확충 위해 산림청 방문 국비 지원 건의

시민체감형 녹색 복지환경 구축 위해 2026년 국비 지원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은 22일 산림청을 방문,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한 사업은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창성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총 2건이다.

'군산철길숲 확대 조성'은 현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기존 철길숲의 연장 구간으로, 사정삼거리에서 구)개정역까지 2.7km(약 5ha)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편백나무숲, 가로수길,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당 구간은 전북대학교 병원 예정지와 인근 상권과 연계되어 있다.

시는 도시의 기후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창성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지역 내 1.2ha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다층 구조의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산책로와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재해 발생 위험은 높지만 생활권 녹지는 매우 부족한 곳이다. 따라서 녹지복지 실현과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크다.

강 시장은 "도시숲은 기후변화 대응·복지환경 개선·경제활력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며, "산림청의 정책적 뒷받침과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산림청 협의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등 앞으로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 국책사업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국책사업발굴단 TF'를 구성·운영하며 '2027년 국가예산 사업' 선제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여러 부서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도시·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 참홍어 서울 직거래 장터에서 ‘큰 호응’

‘홍어’부터 다양한 군산産 수산물 우수성 홍보로 소비 촉진 효과 기대감
군산 수산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회관계망(SNS) 개설·기념품 행사도 추진!



군산참홍어가 서울에서 가진 직거래 장터 및 홍보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안국역 인근 ‘서울동행상회’ 판매장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 특화 수산물(군산 참홍어 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전국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군산 참홍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썼다.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캐릭터 및 관련 홍보 상품을 개발했고, 전용 사회관계망(SNS)을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동행상회 직거래 장터 방문객 중 사회관계망(SNS) 구독 및 댓글 작성 참여자에게는 군산 참홍어 캐릭터를 활용한 열쇠고리를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캐릭터가 친근하고 귀여워 인상 깊었다며, 이를 계기로 군산 홍어 등 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군산 참홍어를 처음 알았는데 한번 맛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군산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업인 등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군산 수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고 평

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우리 군산의 우수한 수산 특산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 어민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활성화, 그리고 군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수산산업과는 지역 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용역’을 추진 중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부경희 개인전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



부경희 개인전 자연에 묵향에 담아내다

2025. 4. 29.(화) ~ 6. 29.(일)
시민열린갤러리 (근대역사박물관 2층)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초대작가인 부경희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전람회 국전 입선 ▲한·중 미술 교류전 ▲벽골제 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약 100여 회의 작품을 출품했다.

작가의 작품은 자연이라는 소재와 선의 묵향, 담백한 색으로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며,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여백의미를 통한 마음의 여유로움까지 선사한다.

작품에서의 여백은 그리다가 남은 빈자리가 아니라, 작가의 의지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상상력을 통해 여백에 대한 무한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경희 작가는 “한 번의 획이 살짝 지나간 자국에서 희미한 색의 흐름조차 깊은 뜻이 담겨 향기가 묻어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수묵화의 매력에 매료되길 바란다”며 소개의 글을 남겼다.

한편, 시민열린갤러리 전시장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등을 지원한다.

작가 부경희의 개인전 '자연에 묵향을 담아내다'가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동양의 따뜻한 분위기를 작품에 담고 여백의미를 통해 각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부경희 작가의 수묵담채화 30점을 선보인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설림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선정

지역아동센터 대상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에 대한 흥미, 책 생활화하는 환경 조성



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책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림도서관은 전국 120개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돼 지역 아동들에게 독서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한우리 지역아동센터와 협력,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을 통해 도서관 이용 교육을 비롯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및 감정표현, 음악 등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제공하고, 작가와의 만남도 함께 진행해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으로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며, 문화 소외 아동들에게 책을 통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설림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설림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 축동로 72
lib.gunsan.go.kr/

군산시-신베이시 상호 초청·방문...화합과 우의 다져

군산시 대표단, 신베이시 '2025 월드 마스터스대회 폐막식'
초청받아...즐겁고 의미있는 시간 가져



군산시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대표로 한 대표단이 교류 도시 신베이(新北·New Taipei)시의 '2025 황베이(雙北) 월드 마스터스대회' 폐막식에 초청되어 친선 방문을 마쳤다고 4일 전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번 방문은 2023년 군산시 대표단의 '2023 신베이 천등 축제' 개막식 초청에 따른 첫 번째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군산시는 신베이시의 교류 도시 대표로 축제에 참가했다.

폐막식 참가에 앞서 대표단은 신베이시를 방문하여 신베이시 류허란(劉和然) 부시장과 함께 간담을 진행했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초청에 감사하며, 신베이시와의 교류 협력 다변화를 위해 공보(교류·홍보), 관광(축제), 도서관, 도시재생,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부시장은 "군산야행과 시간여행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신베이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 축제의 현장에 두 도시의 우정과 교류 협력을 군산시민에게 보여주고 나아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류허란 신베이시 부시장은 폐막식에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해주신 김 부시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신베이시와 다양한 매력을 공유하는 군산시에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초청에 대한 감사와 군산시의 대표 축제에 신베이시 대표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군산시 대표단은 이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5 황베이 월드 마스터스대회 폐막식'에 참가했으며, 허우유이 신베이시장과 더불어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시장을 현장에서 만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

시는 이번 상호 초청과 방문을 통해 도시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현안업무보고 청취, 30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아·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군경합동 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외

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군산시의회
군산시 시청로 17
www.council.gunsan.go.kr

군장대학교,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공 양성에 '전력'

12개 전문대학 참여 '뿌리산업 외국인기술인력 양성대학 협의회' 주도
회장단 선출 군장대 김태원 교수, "지속가능 생태 조성할 것"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숙련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전국 13개 대학에 연결하고 취업과 연계하려는 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가 주최하고 국내 12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뿌리산업 외국인기술인력 양성대학 협의회'가 2025년 6월 16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의 제도 개선, 재원 확보,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발대식은 ▲협의회 회장단 선출 ▲협의회 발족 선언 ▲향후 공동 대응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향후 △2026년 사업비 확보 △제도개선 공동대응 △사업현안 정보공유 △사업정책 제언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단으로 선출된 군장대 김태원 교수는 "개별 대학의 한계를 넘는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 마련되었다."면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 생태계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거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군장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정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1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종은 기자

군장대학교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https://www.kunjang.ac.kr/>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포럼’ 개최

관계자 100여 명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

항만 통합 운영에 따른 대응 체계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



군산시가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포럼’을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 주체의 요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포럼은 군산시가 주관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했으며, 군산시·재난 안전 전문가·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방창훈 교수(경남대학교)와 류상일 교수(동의대학교)는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사회재난

의 복합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단순한 관할권 논쟁이 아닌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서 고도화된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두 항만이 물류·기능·배후 권역 측면에서 하나의 항만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체화된 구조에서 재난 대응 주체가 이원화되면 현장 혼선과 지휘 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된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단일 대응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항만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더라도 유류 유출·화재·교통통제·의료지원 등 실제 재난 현장 대응의 핵심은 현장 기반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항만과 산업단지가 연계된 새만금항 신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검증된 대응 경험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가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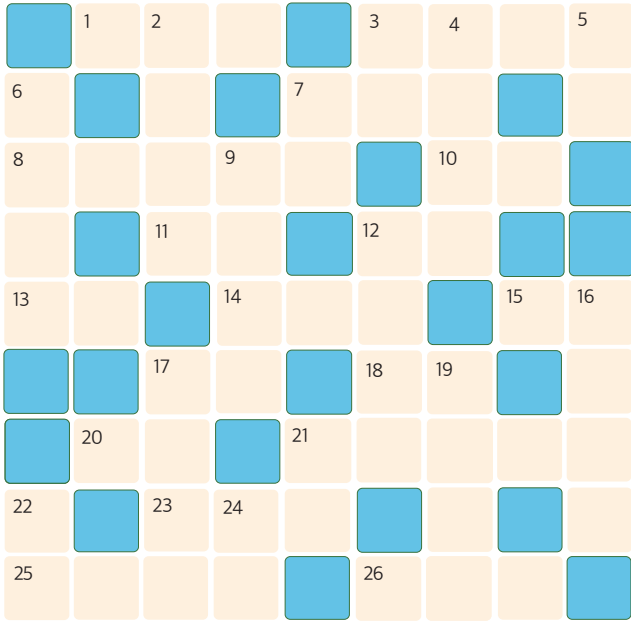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6



사	각	모	흔	사	상	자
자	이	비	인	후	과	장
후	일			등	초	가
사	생	아	이	원		
제	부				사	제
재		유	매	거	진	
해	리	행			관	아
인	석	가	탄	신	일	시
사	춘	기	원	행	운	아

<165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1 경북궁 연못 안에 있는 누각.
- 03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 07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선유도 사이에 있는 섬.
- 08 2013년도 군산시 지곡동에 약 6천여 평 규모로 건립된 군산의 대표적 공연 및 전시 공간.
- 10 위스키, 브랜디 등의 서양식 술.
- 11 글자의 모양.
- 12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같은 민족끼리 조직한 자치 단체.
- 13 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헝겂.
- 14 교육에서 기억과 암기를 위주로 하여 가르치는 방식.
- 15 몸에 살이 찌서 크고 뚱뚱함.
- 17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 18 헤어져 흩어짐. 00가족.
- 20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 21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 23 중국의 국영통신사.
- 25 출제될 것으로 미리 짐작케 하는 문제.
- 26 시험을 치르는 학생.

세로 열쇠

- 02 앉는 자리를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만든 의자.
- 03 여자의 쪽진 머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꿇는 장신구.
- 04 칼로 내리쳐 두 동강을 냄.
- 05 이가 자카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신훈00가어때?
- 06 공중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부리는 여러 가지 재주.
- 09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 12 2019.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세 김만식 군 사고 이후 제정된 법안 이름.
- 16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 17 정부의 비호를 받고 그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신문.
-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약칭.
- 21 축하나 찬양하는 뜻으로 바치는 글.
- 22 자수, 뜨개질 따위의 손으로 하는 재주.
- 24 이야기의 주제.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